

전북개혁신학원 1학기 개강예배

대학부 · 신학부 주야간 학사일정 돌입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임종학목사, 재연교회)은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계획한대로 지난 8일(월), 학부 주, 야간 개강예배를, 13일(토)에는 신학원 개강예배를 소강당에서 각각 드림으로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이경근목사가 인도했으며, 학생처장 채영구목사가 기도하고 홍보처장 김관희목사가 에베소서 2:19-22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상임이사 유남규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학장 임종학목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격려사, 신대원장 정완득목사와 실천처장 유호결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교수부장 류현욱목사는 1학기에 강의할 담당할 교수진을 소개하고, 총무처장 진상운목사가 공지사항을 전하면서 특별히 신중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확인 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무처장 유호결목사의 축도로 학부의 개강예배를 마쳤다.

오후 2시에 드린 신학원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이경근목사가 인도하였다. 교수부장 류현욱목사가 기도하고, 사회자가 고후 7:1-2를 봉독하였다. 상임이사 유남규목사의 특별찬양 후에 학장 임종



학목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신대원장 정완득목사의 격려사와 총무처장 진상운 목사의 학사일정과 총회준목고시를 포함한 공지사항과 광고가

있었다. 봄 학기의 교수진들을 소개하고 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인사가 있은 후에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전북개혁신학원의 1학기 신입생

현황은 학부9명과 신학원6명이며, 신입생 중에는 일반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고무적이며, 전체 재학생수가 49명으로 밝혀졌다.

메시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총회장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효과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발명가 헨리 포드가 어렸을 때 그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엔진 도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기계제작 전문가들이 많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헨리 포드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의 격려의 말이 힘과 용기를 얻어 결국 자동차를 발명해 내었다고 합니다. 그 후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산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드도 "인간의 가장 고상한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으면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큰 염려와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는 진흙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밭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여자를 칭찬하면 죽은 여자의 심장도 뚫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비타민제보다도 더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 일꾼들을 찾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간절히 받고 싶어합니다.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가운데 애정결핍이나 성격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창조적이며 자신감에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칭찬과 격려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격려의 대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산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의 발명을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으로 남을 돕기도 했지만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잘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잘못이나 들춰내고 남의 약점이나 꼬집어서 말해서 상대방의 기를 꺾어버리고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살 맛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웃김은 염색에서 술은 냄비에서 꽃은 향기에서 그리고 사람은 그 말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말투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향기가 발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교회 예배당구입 이전 준비

코로나 19 위기 중에 들려온 기쁜 소식; 1층과 지하 110평 구입



이다윗 목사

서울 남노회 소속 찬양교회(이다윗 목사)는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하고 오는 6월 입당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총회 부서기인 이다윗목사는 2008년 10월에 남노회의 위임을 받고 사무중이다.

찬양교회의 현 예배당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다윗 목사 위임이후 꾸준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동안 주변 환경의 변화와 고가의 임대비가 부담스러워 새로운 예배처소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온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대문구 답십리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가 인도하셔서 계약하고 입당을 준비 중이란다.

어느 교회나 예외 없이, 특히 도시교

회가 예배당 건축은 물론 이전에 따르는 문제들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찬양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의하기를 기존의 성도들이 아무 무리 없이 함께 옮길 수 있는 거리가 여야 하고, 현재의 시설규모(예배실, 교육관, 친교실 등)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되, 예산규모를 최소한 현상 유지함으로 성도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건물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예배당장소로 1층과 지하층(110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연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도들 간에 비전을 공유하지도 못하였지만 성도들의 하나된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성전 구입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찬양교회의 담임 이다윗 목사는 총회 부서기로, 총회개혁신학원구원의 총무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본 교단의 재원이다.

전북동노회 제171회 정기회 성료

노회장; 생명의 빛 교회 정인직 목사 추대

전북동노회(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지난 9일(화) 제171회 정기회를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임원선출 등 회무를 원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기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정인직 목사(생명의 빛 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노회 회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가 기도하고, 서기 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가 고전 1:30, 31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회장 이경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 171회기 임원명단
노회장: 정인직 목사(생명의빛교회)
부노회장: 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
서기: 양기만 목사(평화의문교회)
부서기: 이하종 목사(하늘문교회)



회의록서기: 이길환 목사(큰사랑교회)
회의록부서기: 이한희 목사(세리교회)
회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
부회계: 송정섭 장로(새생명교회)

장학금 전달; 평안교회 장학위원회

평안교회재적 대학생 7명을 포함 12명 수혜

전북 동노회 평안교회(이경근 목사) 장학위원회는 지난 21일(주일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2세 교육을 위한 비전을 온 성도들이 공유하는 뜻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혜자 중에는 전북개혁신학원 재학생 김영선을 비롯한 대학생 7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이 포함되었다. 평안교회는 2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무 위원회로서 "평안 장학위원회" 두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2021학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7명)/김영선 임의현 최형원 이동인 서



민아 최성진 권사랑, 고등부(2명)/송준하 강민선, 중등부(1명)/이민규, 초등부(2명)/김수연 손재호)이다.



축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총 회 장



이경근 목사

목사부총회장



박형진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재호 장로

서 기



신연식 목사

부 서 기



이다윗 목사

부회의록서기



진상운 목사

회 계



박병욱 장로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社說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중중 언론매체에 "증인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뉴스가 실린다. 검경의 각 중수사기록이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관련증인들의 신변과 사생활보호에 허점이 드러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증인과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진술을 꺼려하게 되므로 증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뉴스거리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그 현장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증인이 없어지면 그 사건은 미궁으로 묻히고 미제사건이 되고 만다. 세상에서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더라도 불구하고 종종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처럼 덮이고 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증인과 증거를 없애보려는 몸부림도 심각하다.

지금 사회면을 달구는 세 살 어린아이의 행적을 찾는 어이없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목격자를 찾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전자 검사결과까지도 못 믿겠다는 그 엄마의 억지(?)를 해결할 증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구도 내가 증인이라고 나서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

는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인, 목격자의 증언은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하는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인들이 도망치고,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마저도 2차 보복이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건이요 튼튼스요, 특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해서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그 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니 증인된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월 4일, 금년도 부활주일일 앞두고 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19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이다. 부활의 증인들이 백난을 무릎 쓰기도 예수의 확실한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증인은 본 대로 말해야 한다. 느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 증언은 아주 특이해서 살오 증언해야 한다.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서 나를 보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어디 없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되는 방역시국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어서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드높고 골목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자영업자들은 손을 놓아버린 지 오래다. 불안 곳에 기름을 붓듯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그것도 국가 정보를 훔쳐내어 조작적으로 투기판을 벌인 어이없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그런 때를 살다보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들 말한다. 이렇게 어려워도 아니보다 더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야 나할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시키

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도 그러하고 가정의 일 역시 그렇다. 그래서 엄청난 방역지침에도 양가의 상경례의 경우에는 모임의 상당 숫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루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비상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총회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교단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신년례회에도 열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나마 목장기도회는 5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의해 둔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19를 핑계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기도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았는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손해볼일은 절대로 없다.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제363차 월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로 모여; 전북개혁신학원에서

전북 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홍복순권사)는 지난 16일(화) 제363차 월 정기모임을 겸한 정기총회를 전북개혁신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 앞선 개회예배의 인도자는 회장 홍복순 권사(장수은강교회)였다. 회계 김원자권사(장수은강교회)가 대표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미가7:14-15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설교자로 나선 이종봉 목사(낙원교회)는 "주의 자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하였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이하종 목사(하늘문교회)가 기도하였다. 총무 유하순 권사(낙원교회)가 광고하고 김종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계속된 회무는 홍복순 권사가 의장으로 나서 진행하였으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그리고 임원선출과 신규 임원교체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낙원교회는 이날 중식과 다과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섬김으로 회원

들의 귀감이 되었다. 신 임원 명단 : 회장 홍복순 권사 (장수은강교회) 부회장 배순심 권사 (동명교회) 서기 류성란 권사 (평안교회) 부서기 김영순 권사 (좌포은총교회) 회 계 김원자 권사 (장수은강교회) 부회계 김정희 권사 (금성교회) 총 무 유하순 권사 (낙원교회) 감 사 하영숙 권사 (엠마오교회) 윤순일 권사 (평안교회) 김수열 권사 (금성교회)



역원 : 차장 김은하 권사 (평화의문교회) 교육부 부장 강혜숙 권사 (더풍성한교회) 음영부 지휘 김대석 목사 (은혜영광교회) 차장 박인순 권사 (금평교회) 반주 류성란 권사 (평안교회) 선교부 부장 배정미 권사

한교연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소외된 그늘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23일 오후 사회적 약자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 40여개 단체와 회원교단 등에 방역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교연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역마스크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



한교연은 이날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참좋은친구들, 사단법인 성민원 내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민네트워크 탈북동포회, 순교자기념교회, 다문화복지센터 등

경기노회 제195-2차 임원회 소식 중경노회장, 임원 및 시찰장 연석회의; 제196회 정기회 장소 확정



경기노회(노회장 박동혁목사)는 지난 21일(주) 오후 5시 교단본부에서 제 195-2차 중경노회장, 임원 및 시찰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서기 전기원 목사(예성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중경노회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가 기도하고, 회의록서기 류성훈 목사(소망교회)가 마태13:14-21절을 봉독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주제로 노회장 박동혁 목사(더스토리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진행된 회의는 노회장 박동혁목사가 의장으로서 진행하였다.

포토 뉴스



전북동노회(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지난 9일(화) 제171회에 4교회와 5명의 목사님 가입이 있었다. 김병설 목사, 박양미 목사(산마루교회) 강윤혜 목사(생명수기도원) 김금량 목사 (은혜의 빛 교회) 손경희 목사(생명샘교회)

總 改革公報 會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충년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02)742-3538 http://rpc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취재부장 유남규 제작번호: 총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www.rpck21.org E-mail: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 Div, eq)	-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 Min)	- 목회학석사(M, 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접 수 : 2020년도
-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모리아성구사 기술 특허 업체 품질 인증 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대표이사 김재호 장로 010-3653-6162 (본교단 전북동노회 한소망교회 시무)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서울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공방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7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신학강좌



정일용 박사

참고문서: 정일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총신대출판부 201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필요하며, 역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요한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관용하며,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로 엮어가는 다스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까? (신앙의 플레랑스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공부'가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을 대체하는 신앙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그 일에 열중해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방법을 적용할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경공부방식에 전적으로 의존된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그에 따른 신앙양태들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궁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경해석의 지나친 주관성과 주관적인 신앙체계의 주장들로 인하여 역사적인 신앙고백과 신앙고백이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신앙고백과 신앙고리의 역사성을 무시함으로 올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신앙고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것들이 지금 겪고 있

는 한국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시비들이요, 진리혼돈의 현상들이 생이다. 또한 그동안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에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전도에 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교파와 개교회 의 몸집 불리는 일(양적성장)에 과도한 교파경쟁을 마다하지 아니했던 결과가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한국교회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신앙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회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일에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신앙고백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교회공동체의 한 목소리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구별(이단분별력)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 이에 걸맞게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목표로 신앙고리의 체계로 만들어진 신앙고백

에 근거하여 새 신자와 청소년과 기존신자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의 지적인 능력 전수하는 일과 신앙관을 세우는 일과 성경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요리문답교육은 루터에게서 알게 된 것처럼,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이 기독교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며(십계명), 무엇을 믿어야 하며(사도신경),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주기도문)인지를 지도하는 교회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도 확인하였다.

이제 본 논문의 결론으로, 한국장로교회 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신앙교육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현대화 논쟁에서의 적용에는 몇 가지 점에서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구별(이단분별력)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 이에 걸맞게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목표로 신앙고리의 체계로 만들어진 신앙고백

의 통일성을 지닌 '새 요리문답서(New Catechism)'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고백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금 심각한 교파분열과 과도한 교회성장의 치열한 경쟁목회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장로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를 생각하면, 교회연대와 교회연합과 교파통합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서로 다르다고만 주장하면서 자기교파를 상대적으로 차별화시키던 행위를 멈추고, 서로 공동되며 일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찾아내고 발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역사적인 신앙의 통일성과 신앙의 표준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언제나 시비 거리가 되며, 논쟁가운데 있는 한국사회의 사이버종파와 이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고,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반석위에 세워진 든든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라 되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들로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적인 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동 정



이경근목사 - 개강, 노회 이경근목사(총회장, 평양교회는 2월 26일(금) 세계선교회 참석하여 축도를 하고 3월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인도를 하였으며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 참석하고 축도를 하였다.



임종학목사 - 설교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민교회는 2월 26일(금) 총회 세계선교회도 참석하였으며 3월 6일(토) 총회개혁신학교 강의를 하였고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설교를 하였다.



류현욱목사 - 개강, 노회 류현욱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는 2월 16일(화) 전북개혁신학 교수간담회 참석하였고 26일(금) 총회 세계선교회도 참석하였으며 3월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참석하고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에 참석하였다.



황호관목사 - 강의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은 3월 6, 13, 20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를 하였으며 15일(월) 3월 개혁보수 주말을 하였다.



정인득목사 - 축사 정인득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는 3월 8일(월) 전북개신원 개강예배에 축사를 하였다.



윤서구목사 - 강의 윤서구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는 2월 27일(토) 3월 6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교회간 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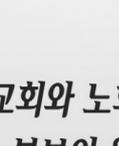
신연식목사 - 귀국 신연식목사(총회서기, 디베라교회는 미 서부지역으로 2월에 출국하였다가 3월 4일(목) 귀국하였다.



정인직목사 - 노회장 정인직목사(전북동노회장, 생명의빛교회)는 3월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 노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유남국목사 - 축가 유남국목사(전북증부노회장, 어름교회)는 3월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에서 특송을 하였다.



박만진목사 - 강의, 한교연 박만진목사(총회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는 2월 27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를 하고 3월 3일(수) 한교연 임원회 참석하였고 6, 13, 20일(토) 강의를 하였으며 22일(월) 신문 편집을 하였다.

신학&신앙



장영 목사 (신약학 교수)

계시록 5분 강의노트 1회

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재가 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5장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일곱 개의 인봉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자 인봉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봉재앙으로 사람들이 무서워 놀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6:17).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은 그 대답으로 영적 이스라엘 144,000명이(성령으로) 인침 받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오고(7:4-8), 후반부(9-17절)에는 그들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복락을 누리라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8-9장의 나팔재앙의 성격은 인봉재앙과 같이 제한적이며 부분적입니다. 앞에서 인봉재앙은 온 땅의 1/4에, 그리고 이 나팔재앙은 온 땅의 1/3에만 재앙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20-21에 보면, 그들은 여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10,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남은 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적 성격의 대제사장만이 남았습니다. 대제사장은 15, 16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리시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일을, 12-14장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싸움에서 패배한 용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납니다. 13장에서는, 용의 하수인

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15,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부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16:17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큰 음성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17-19장까지는 그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장에서는 음녀-바벨론과 짐승-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으며, 18장에서는 음녀-바벨론과 거래하던 세상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서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군대

가 재입하는 백마를 탄 자의 군대와 전쟁을 하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힘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기간 동안 예수가 하늘에서 머무시듯 사단도 무지경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 곡과 마곡의 군대를 이끌고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도 불과 유힘 불에 던져집니다. 21장-22장5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 신천지가 설립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성의 그 찬란한 모습과 그 구조와 크기와 재료를 통해(완성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생복락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21에는 이와 같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감격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라니타!"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끝냈고 있습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충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Table with 4 columns: Name, Amount, Name, Amount.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 구독료는 5만원입니다. ※ 예매광고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설교

부활의 예언

(시편 16편 1-16절)



강대민 목사 (중경총회장)

남과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2. 이웃과의 관계

다윗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무리와의 교제는 멀리합니다(4절).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3. 현세의 복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현세적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잔이 되십니다(5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5절).

또 하나님은 줄로 재서 폭막게 주셨 습니다(6절). 이 복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영원한 기업, 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安然히 거하게 되었다'(9절)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은혜해 주십니다(7절). 또 우편에서 지켜주십니다(8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 미래의 소망

다윗은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복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부활의 복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을 얻을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며 또 신앙의 논리로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11절).

우리는 이 믿음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실족으로 다 죄로 떨어졌지만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사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엠마오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해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거듭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바울의 안디옥 설교에서 오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버려지지만 썩지 않으시고 새 생명으로 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고 부활 예언입니다. 다윗의 시체는 썩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았다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

매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부활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2절). 환난 때나 평온할 때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개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1절). 이 하나님은 곧 전능자입니다. 또 영호의를 부르고 있습니다(2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주를 찾았습니다(2절). 그분은 주권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

초대칼럼



전무원 목사 (한미음교회 원로)

대신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대신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무죄한 나뭇잎을 벗겨내고 짐승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대신 죽은 희생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행하게 대신이라는 글자를 우리 뇌리에 새긴다. 창세기 22:13은 이 대신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가슴에 깊이 아주 선행하게 찍어 놓는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

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곱씹없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 결박한 이삭을 앞에 두고 목을 따르고 비수를 치켜들었을 때 만감이 교차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신, 이삭을 대신한 숫양의 아들 대신은 참으로 놀라운 해답이다.

그 뒤에 아담이 이 대신을 자신의 전 유물로 여기고 몽땅 이용하는 파렴치를 보여준다. 그는 아비 이삭의 눈을 속여 형에서 대신 아비의 축복을 빼앗는다. 그 후 밧단아람에서 라반은 동생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밀어 넣는 해프닝을 벌인다. 또 무자한 라헬은 자기 대신 시녀 빌하를 아람의 품에 안겨줘 단과 납달리를 얻자 레아도 실바를 자기 대신 남편의 품에 안겨주므로 아람의 가족사의 대표 적인 말이라면 대신을 들출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으로 신약에서는 우리 구속을 위해 예수 우리 대신 입을 온통 도포(塗布)하셨다. 물론 속은 예수가 우리 대신이니 겉과 속이 대신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철저히 나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죄 프로그램에 의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 철저히 전폭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어린양 예수로 이뤄진 생명의 역사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인가? 생각할수록 그 신비는 쉽게 풀리지 않으나 명백한 해답은 대신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어린양 예수로 우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이 되는 일이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최근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다. 풀은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갈려고 거리로 나왔으나 금요일 저녁시

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동료들이 손잡이달려가 잡아탔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잠시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돼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았으나 풀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고 일행을 떠나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 가 보니 울고 있는 할머니는 시카장애자였다.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며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주어 담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든 손해 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물었다. "Are you JESUS?" 이 말에 당황한 풀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돈이 없는 것을 알고도 삼각지 로터리의 한 분식점에 들어가 갈국수를 두 그릇 먹고 돈이 열리자마자 냐다 뛰어서 도망갈 때, 뒤에서 들리는 주인 할머니의 욕이 아닌 진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청년은 주인 할머니의 음성을 듣자마자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가 사탄이 묶은 사슬임을 깨닫고 삶이 변했다는 기사를 떠올리며 저도 저 자신의 귀에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냥 충성해! 어설픈 비판하지 말고!>

기도 제목

1. 주말 전체통금으로 인하여 랜선 주일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모임 수 있도록, 2. E 시의 공동체를 섬기는 V 형제의 자녀 스텀의 심장병이 회복되어 그가 K 시의 한 병원 원무부에 취업할 수 있기를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 시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3. A 시의 A 자매가 다른 도시에 가서 항암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4. 이혼 수속을 진행 중인 K 시의 S 형제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후원관리 : pay to the order: GMP America (김기쁨사랑지정) P. O. 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어서 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그랬는데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You must be JESUS."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풀은 비활기를 놓치고 하룻밤을 다시 뉴욕 호텔에서 머물며 한밤중에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 고민은 우리 몫이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14:16)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 주님은 우리가 주님 대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님을 대신한 삶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삶이다. 금년 부활절에는 예수 대신(代身)의 삶을 살기로 다짐함이 어떨까?

대신(代身)이야기

기쁨 사랑의 2월 소식

선교지



부족한 응원

주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에 아직 저희 공동체의 형제라고 할 수 없는 변호사로 일하는 믿는 자 S 형제(43)가 믿지 않는 아내와 이혼 수속을 진행 중이라며 밝고 있다고 제게 기도 부탁했을 때, 제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지만 믿는 자가 된 S를 보고 믿지 않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침 K 시를 방문한 E 시의 현지인 사역자 V 형제와 함께 그의 오피스를 찾아가서 아내와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S 형제의 아내



내 Z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현지인의 정치적 때문에 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동체로 나오는 트램바이(Tram) 안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늦은 오후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분실물센터가 있는 트램바이 종점인 S 대학교역으

로 갔습니다. 센터 직원이 제게 휴대폰이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묻고 곧 내어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쩌면 이 작은 일이 현지인을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어서 회개했습니다.

일지리를 잃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돈이 없는 것을 알고도 삼각지 로터리의 한 분식점에 들어가 갈국수를 두 그릇 먹고 돈이 열리자마자 냐다 뛰어서 도망갈 때, 뒤에서 들리는 주인 할머니의 욕이 아닌 진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청년은 주인 할머니의 음성을 듣자마자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가 사탄이 묶은 사슬임을 깨닫고 삶이 변했다는 기사를 떠올리며 저도 저 자신의 귀에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냥 충성해! 어설픈 비판하지 말고!>

기도 제목

1. 주말 전체통금으로 인하여 랜선 주일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모임 수 있도록, 2. E 시의 공동체를 섬기는 V 형제의 자녀 스텀의 심장병이 회복되어 그가 K 시의 한 병원 원무부에 취업할 수 있기를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 시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3. A 시의 A 자매가 다른 도시에 가서 항암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4. 이혼 수속을 진행 중인 K 시의 S 형제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후원관리 : pay to the order: GMP America (김기쁨사랑지정) P. O. 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 전북동노회 제171회 정기회
- 노 회 장 정인직 목사(생명의빛교회)
 - 부 노 회 장 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
 - 서 기 양기만 목사(평화의문교회)
 - 부 서 기 이하중 목사(하늘문교회)
 - 회 록 서 기 이길환 목사(큰사랑교회)
 - 부 회 록 서 기 이한희 목사(케리그마교회)
 - 회 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
 - 부 회 계 송정섭 장로(새생명교회)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드비전교회



담임 이승규 목사



담임 김선영 목사

더불어 생각할 正論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할 일은 끝없이 다가오고 시간은 짧아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인생이다. 살아 있는 생명은 그칠 줄 모르는 도전과 전진을 거듭한다. 살아 있는 생명이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여호와와 힘이어야 한다. 어떠한 지도자가 서나베라 홍명성쇠가 결정되고 승패가 좌우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임이 틀림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구촌이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만 하는 현실이 언제 종식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다가와 어려움에 겪고 있다. 선교가 위축되고, 봉사 활동이 위축되고, 교회의 교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의 열정적인 움직임들이 힘을 잃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어려움은 결국 교회의 어려움으로도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해를 구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저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후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도전의 기회로 삼았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가 찾고 만들고 도전하면 된다. 도전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갈렘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 점령하기 쉬운 곳이 아니지만 도전하겠다고 한 것이다(수14:12).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

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세속적인 지식으로, 나의 지나온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야심 차게 시작을 했다가도 위기나 어려움이 앞에 닥치면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설사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서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림길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길을 가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승리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을 때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막강한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지라도 정, 재계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막강해질뿐더러 국력이 크게 신장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때 새로운 도전으로 더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물이 기름과 하나 될 수 없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없듯이 진리와 비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면 계속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 어려운 재난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의식으로 하나 될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렵고 여기는 그 어떠한 일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산교회 담임)

옛날 중국 진나라에 '계자주'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청렴한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마다하고 산중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갈수록 어수선해지자 사람들은 '계자주'를 필요로 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있다는 산을 헤매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고심하던 사람들은 산에 불을 지르면 그가 살려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산에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끝내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마음이 씩씩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된다.

간혹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신자로 몰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실태이다.

최근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어 산에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끝내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은 불이 원수처럼 되었다고 하여 부엌에 불을 놓지 않고 전날에 만든 찬밥을 먹는 날로 정했다. 이것이 바로 한식(寒食)의 유래다. 많은 사람이 지조에 대해 말할 때 곧잘 '계자주'를 들곤 한다.

이제 두 주 후면 부활절이다. 카렌다를 보니 이번 부활절은 한식과 겹친다. 한식을 생각하다보니 불현 듯 "계자주"가 생각이 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는 정말 지조(志操)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공직자들과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양심과 지조를 따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신앙(信仰)의 지조(志操)를 지키자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신학&신앙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 이어 하나님 이해하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Decree)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영원하신 계획이다.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허용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목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절대적인 영역과 허용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섭리영역이란 이사야 49:9-11, 에베소

law)이라고 일반 학계에서 부르는 보존(preservation)이 있다. 이는 물질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칙 및 계획을 말하는데 우주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의 발생, 존속, 반복 및 물질의 생성, 존속, 퇴화의 원리 등 전체를 포함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계는 이 보존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보존 속에 다시 품성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인 관여(providence)하심이 있으며 이는 인류의 역사 및 인간관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및 목적으로 성서적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에서 볼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 악령, 천사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 천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품성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관여하심 속에 특히 죄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예정(Election)이 있는데 이는 사탄이나 악령 등 타락한 영계의 존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교리이다.

예정이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brain picking)이다. 논리적 개념이란 하나님께서 예정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결정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섭리, 보존, 및 관여하시는 역사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필요가 있다.

예정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타락 전 예정설(Supra-Lapsarianism)이다. 이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기초한 이론으로 예정이 성취된 것은 타락 이전이었다는 주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중예정설(Double Predestination)이 그 특징이며 이는 베르코프(Berkhof), 쉐드(G.T. Shedd), 스트롱(A. H. Strong)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이를 지지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한 역사가 되므로 제한된 대속론(Limited Atonement)이, 그리고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에게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미치므로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성령의 도우심은 필요 없게 됨으로 한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성령의 도우심인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타락 전 예정설은 요한복음 3:16, 고린도 후서 5:17, 요사 2:2, 베드로 후서 3:9 등 많은 성구와 상충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출생했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며 동시에 중생이라는 개념은 신학 체제상 용납될 수 없으며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이해하기 7.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가 싶을 때쯤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솔한 압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2021년 105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8장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재언

일어나서 함께 가자



김강섭 목사 (동주교회)

동역자들이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힘차게 걸어나가자.

우리 모두는 함께 가야 할 동역자이며 동행자이다.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 차도남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탈피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타적이고 공동체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힘써 싸워 나가자.

어느 때보다 움츠러든 가슴일랑 활짝 펴고 어깨에 잔뜩 새 힘을 불어넣고 별똥 일어나 함께 나가자. 그토록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일어났던 차가운 대지에 잃었던 봄이 찾아오고 있음이다.

남녘으로부터 맑고 아름다운 꽃소식이 우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소망의 그 봄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걸어 나가자. 앞을 향하여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도 곧 종식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야 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이 땅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기 때문이요 이제 꽃이 피고 새들의 희망찬 노래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 속에서 소망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내세에 영원한 삶을 비전으로 주셨다.

겨울은 혹독한 추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고난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또 우리에게 죄의 죽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없는 소망이요 기쁨이다. 동토의 땅에 꽃 피고 새우는 새봄이 선물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듯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아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지난날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 낙망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을 붙들고 여기까지 버텼다. 우리는 마침내 새 희망을 보고 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희망의 봄이 찾아왔기에 그러하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한다.

둘째는 비웃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애로운 음성으로 보호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기에 한 없이 부드럽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묘사이다.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고 방패이고 환난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다.

이제 일어나 주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기위해 일어나 함께 가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우리 모두의 거처이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다.

민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할까 이나민군의 여호와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선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신다. 반석에서 샘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주신다. 그의 자녀 된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음성 들기를 즐겨위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자. 고난주간을 지키며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 깊이 묵상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살림이 새겨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를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명으로 정사 할 것이며, 주안에서 안전하고 안정될 것이 분명하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예쁜 자들이! 일어나 함께 가자.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경경총회장, 본보 사장)

교회력이 있어서 규모 있는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 금년으로 두 번째 우리 교단의 행사일정을 명기한 커다란 카렌다를 배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카렌다에 상식대로라면 부활주일일 3월 마지막 주일이어야 하는데 4월 첫 주일로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냐는 문의가 있어서 살폈더니 과연 그러했다. 카렌다만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야 문제될 일이다.

그러나 부활주일일은 그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목회자가 사순절 절

기를 앞두고는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되새길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훈련의 기회로 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정성을 기울인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이 계속되는 중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가 생각밖에도 4월 4일이니 혼란스러울 수 있을게다. 차체에 부활의 첫 열매되신 그 날이 언제라고 특정되어 있는지 성경의 기록과 유대의 전통과 교회 공의회 결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과연 어느 날이었을까? 복음서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지진 율월절을 배제하고는 계산할 수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마지막 율월절 잔치-안식일-다음날 새벽미명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유대교의 전통을 고려해서 춘분 후 만월, 그리고 평일이 아닌 다음 "주의 날"

을 부활절로 정했기 때문에 부활주일일은 율월절을 앞설 수 없었다. 당시 교회는 유대교 절기에 익숙했고, 그러한 시간감각 위에 교회의 신앙과 전통이 쌓인 것이다.

부활주일을 전통과 절기의 관점에서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분명한 역사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신약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주님의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고 존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날을 기념하고자 할 때 정확한 날짜를 따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부활절을 정하는 원칙은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숙고한 끝에 결정하였고, 교회는 지금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결정은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만월일 뜨고, 그 후 도래하는 주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혼란은 있을 수 없다. 금년의 경우 춘분이 3월 20일이고

율력 2월 보름날이 양력으로는 3월 27일이다. 그 다음 주일인 3월 28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전통이고 상식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계산법이다.

그런데 금년은 4월 4일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24절후를 나누는 율력과 세계교회력이 다름에서 온 결과이다.

율력의 날짜와 달의 모양(월령)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력의 기준이 되는 만월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율력중심의 달력이 말하는 보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면 서운 혼란일 뿐이다.

세계교회력의 기준이 되는 만월은 "부활절 보름달(Paschal Full Moon)"에 근거하고 있다. 부활절 보름달의 날짜는 양력의 기준이 되는 그레고리력에 기초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28일이 그 날이고 이를 기준으로 부활주일일은 4월 4일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 베다(St.

Bede, 673-735)와 같은 학자들의 수고와 교회의 합의의 거쳐서 성경의 기록, 관측에 의한 달의 위치, 모양, 그리고 춘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computus"라는 용어로 이 체계를 정착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 동방교회들은 그레고리력이 아닌 율리우스력을 따르기 때문에 부활주일 날짜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교회가 춘분을 3월 21일로 고정시켜 계산하는 전통도 있어서 부활절 날짜가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금년도 부활주일 날짜는 세계교회력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런 이의 제기와 의문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매우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메시가 중구부쟁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아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 베다(St. Bede, 673-735)와 같은 학자들의 수고와 교회의 합의의 거쳐서 성경의 기록, 관측에 의한 달의 위치, 모양, 그리고 춘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computus"라는 용어로 이 체계를 정착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 동방교회들은 그레고리력이 아닌 율리우스력을 따르기 때문에 부활주일 날짜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교회가 춘분을 3월 21일로 고정시켜 계산하는 전통도 있어서 부활절 날짜가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목양칼럼



박형진 목사 (부총회장, 새은혜교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Jesus is alive)는 말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부활주일일은 이전엔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현재형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얼굴에 절반 이상 화상을 입어 살이 시커멓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이 갖 고등학생이 된 딸과 같이 살고 있었다.

그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엄마와 같이 외출하기도 꺼려하고 친구들이 볼까봐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이모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조카를 보다 못해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야기 했다.

"네가 어렸을 때, 네가 난로를 붙잡고 일어섰고 그랬다. 그 순간 난로가 흔들렸고 난로 위에 얹어둔 주전자 너에게 쏟아져서 그랬다. 그때 네 엄마가 달려들어 너를 구하려다가 얼굴이 저렇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은 대성통곡을 했다.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 이야기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고 감사했다. 부활주일일은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날이 아니다.

"일년 52 주일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부활주일엔 '예수님 부활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는 하지만 무심하게 지내는 사람까지 적지 않다.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부활주일에 배를 무심하게 드릴 수는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장차 들어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욕심이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활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고 말 씀하셨다.

세상의 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잘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돈을 많이 가졌든...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선 굽뚱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 죽을 뻔한 것에 놀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 앞에서 하는 말이 "죽을 뻔 했네. 죽는 줄 알았네."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정면으로 부딪쳐 거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못 믿은 사람(갈3:27)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5:1) 영생과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요3:16, 빌3:20)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얻었다.(벧전2:9)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요1:12) 사마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죽기 싫어하지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서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로 살아야 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소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돌맹이를 들고 큰소리 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때문이다.(삼상17:45)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어떤 때인가?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엄중할 시기가 아닌가? 지구촌이 코로나 19 앞에 맥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때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다. 두려워 말고 있다면 부활신앙의 재고가 바닥이 나 있다는 실증이다. 지금은 부활신앙의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여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여야 한다.

부활신앙의 재고 조사

전국교회예배안내

Table with 8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service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Rows include: 재언교회, 성현교회, 덕소제일교회, 평안교회, 광일교회, 모악교회, 소망교회, 예수소망교회, 남광교회, 낙원교회, 화평교회, 새록장교회, 증심교회, 그루터기교회, 한빛교회.



이해동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소그룹은 교회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교회사는 소그룹들의 태동, 발전, 계승의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사에서 나타난 소그룹 운동의 역사적 근거를 살펴본다.

1. 초대 교회의 소그룹 운동

교회사를 볼 때, 소그룹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인 것과 같은 가정교회 모임이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동

안에도 로마의 카타콤 안에서 지속되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소그룹의 힘이 컸다.

혹자는 "초대교회의 소그룹에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에 나타났다. 그리고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초대교회 소그룹 사역은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등이 통합된 것이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숫자적 증가와 영적 깊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또한 역사상 교회가 폐기와 성장의 활력에 넘쳤던 위대한 기간도 처음의 1, 2세기였다.

2. 중세 교회의 소그룹 운동

서방 로마제국의 멸망과 아울러 수많은 왕국들이 건설되었다. 이들은 모두

그 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었던 두 개의 큰 조직들, 즉 수도원주의와 교황제에 새로운 기능과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때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조직이 되어버린 것과는 달리 소그룹으로 모여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수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였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타락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수도원의 개혁 운동과 탁발 수도회의 발전은 중세시대 소그룹 운동의 활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수도원 개혁 운동

중세의 수도원 자체도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수많은 수도원들이 노스펜과 헝가리인들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되었다. 이러한 침략의 불길에 피한 수도원들은 탐욕에 찬 수도원장들과 교위 성직자들의 제물이 되어갔다.

소그룹 운영의 역사적 근거

수도원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맡았던 귀족들과 감동들은 오히려 수도원들을 사유 재산화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아퀴데인의 공작 윌리엄 3세는 소규모의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소그룹으로 모인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주된 작업은 베네딕도 규율집이 지시한 바대로 경건회, 즉 기도과 성경 강독으로 구성된 예배의 모임이었다.

이러한 수도사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논, 밭에서의 노동으로 손발에 흠이 묻지 않으면 이를 좀 더 순수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11세기에 있어서 교회개혁은 이미 수많은 수도원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움직임의 연장으로서 파악되었다.

2) 탁발 수도회들

중세사회에서 도시들, 교역, 그리고

화폐 경제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부자와 빈자들 사이의 간격도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인구가 증가로 말미암아 전통적 교구 목표는 도시를 향해 모여든 인구들의 종교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수 세기를 두고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 왔던 수도원 운동이 이와 같은 화폐 경제의 약점에 대응하여 인구 이동에 대처했다. 이들이 탁발 수도사들로서 그 의미는 구걸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왈도와 프란시스이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둔생활과 함께 작은 탁발 수도승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탁발수도회는 육체의 욕망과 세속의 유혹을 피하여 산 속으로, 음지로 숨어들어가던 다른 수도원 운동과 달리 다시 세상으로 나와 가난한 삶

을 실천하면서 설교와 봉사를 했다.

이들은 곧 성당 참사회원들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모여 살되, 세속 생활로부터 분리되거나 신자들에게 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통신앙의 설교와 교훈을 가르쳤다. 타락하는 교회의 조직에 반대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이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탁발수도회는 삶의 본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용기 있고 능동적인 운동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중세시대의 소그룹 운동은 거대한 교회조직과 달리 경건한 수도승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그룹으로 모여 지금 가족을 하며 성경연구와 설교에 집중하며 순회 설교도 행하였다.

그러나 초대 교회와 같이 성경적인 소그룹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경건에 치우친 소그룹 운동임을 중세 수도원의 운동

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운동

생명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탄력을 잃고 있었던 중세교회 때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와 같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훈련하고 봉사했다.

그들은 부패해가는 교권주의의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유럽 재세파 운동(Anabaptist movement) 또한 가정집을 기초로 한 역동적인 소그룹들을 형성했다.

독일 남부 모라비아에 있는 후터파는 신앙 성경적 공동체 생활방식으로 삶을 영위함으로써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두운 중세 교회사에서도 소그룹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목양 내조기



양영자 사모 (재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남편과 나는 시 할머니를 모시고 두 명의 시동생과 시누이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신혼부터 6명의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저개발 국가였고 가난한 나라였으므로 복지제도가 거의 없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다녔다.

나는 신혼이었지만 집안 일이 많았다. 밥을 많이 했고 도시락을 싸고, 씻는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를 할 새 없이 했다. 겨울에는 연탄불을 하루에

6-8장씩 갈았다.

새벽마다 청소차의 종소리가 들리면 연탄재 상자를 들고 나가서 버리는 일도 힘든 일이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사골에서 농사일에 바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매주 1:1 성경공부를 2명씩 했다. 가끔 ESV(독대학인회) 우리가 섬기는 대학생 선교단체)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ESV 학생들과 학사(ESV 학생들) 졸업하고 계속해서 ESV를 섬기는 사람들도 학사 에스에서 빌려온 말로 평신도 성경선생을 뜻한다)들이 수시로 우리 집을 방문하여 식사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래서 늘 밥상에 밥을 많이 해 두었다.

지금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그때는 거의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를 하며 몇 달을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다른 한 형제는 1년 동안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싸주었다. 나의 친정 동생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

한편으로 나는 2남 1녀를 낳아 기르면서 많은 일을 했다. 얼마나 피곤했던 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는 누워서 먹었다. 하루는 누워서 젖을 먹는데 맛

대가족 속에 신혼시절 (3)

은 편 반박대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빨래 더미가 골라내어 보였는데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이 무서웠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시집살이 하던 옛여인들의 삶이 생각났다. 내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가슴에 띠 띠 말을 많이 했다. 어머니들이나 며느리들에게 혼 한 병으로 극심한 기쁨을 주었다.

여인들이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생기는 핏병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었다. 나는 그 여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들처럼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삶에서 체험하였다.

허리가 휠 만큼 고된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을 수 있었고 이겨 낼 수 있었다.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새 힘이 솟아났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

는 능력을 주셨다. 기쁘게 일하는 마음을 주셨고 찬양하며 일하게 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치열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나에게는 해마다 열리는 여름 수양회가 휴가였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강의를 잘 들을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3살만 지나면 나를 찾지도 않고 잘 놀았다. 나는 집안일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밥을 먹으며 수양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웠다. 남편은 수양회에서도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느라 바빴다.

수양회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쟁길 때에 보이지조차 않는 남편이 아슬아슬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러한 아픔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동생들은 우리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형과 오빠, 누나를 따라 교회에 다닐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았다.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간다고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동생들을 사랑했고

잘 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었다. 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도 했지만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마음이 아팠다. 때로는 답답하고 실망이 되었다.

동생들의 변화에 대해 느긋한 남편에게 답답해서 속상할 때도 많았다. 동생들이 반발하거나 거부 할까 말도 못하고 애만 태웠다. 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약했다.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쉽지 않았다.

나는 인내와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참으로 사랑이 없고 인내와 섬김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없음과 인내하지 못함과 기도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연습하기로 했다.

지금 동생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다. 장로와 집사, 권사들이 된 동생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조금 약하게 보이는 동생들도 있지만 모두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한교연, 서울 달동네에 연탄 2만6천250장 기증

임원·교단 총무 등 20여 명이 직접 연탄배달 봉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 달동네에서 '2021년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2만6천25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교연은 매년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곳으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증가추이 어려워 겨울 난방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세민 마을로 알려져 있다.

한교연이 이날 전달한 연탄 2만6천250장은 이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약 2207명이 한 달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를 비롯한 임원, 회원교단 총무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리어커 또는 지게에 연탄을 실어 집집마다 직접 나르며 봉사의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전국교회예배안내

영복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이충년 목사

등명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30. 담임 류현욱 목사

새은혜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박형진 목사

극동선교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박봉주 목사

성인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정원득 목사

동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8:00. 담임 김양섭 목사

월드비전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밤 예배 1부 9:00, 2부 11:00, 주일 밤 예배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김선영 목사

임마누엘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3:30, 수요일 밤 7:30, 구역예배(금) 9:00. 담임 윤서구 목사

증산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삼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김정용 목사

소성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30. 담임 이승규 목사

수원성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3:00, 7:30. 담임 박춘배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 담임 이해동 목사

꽃밭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박광식 목사

한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2:00, 수요일 밤 7:30. 담임 김정호 목사

김제반석교회 예배시간: 새벽 4:30, 주일 11:00,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이부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제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총대교회는 15만원 이상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경근 목사

강대민 목사

신연식 목사

박춘배 목사

박형진 목사

김양섭 목사

문만호 목사

이다윗 목사

김정호 목사

진상운 목사

박광식 목사

박경남 목사

제 105 회 기 세 례 헌 금 현 황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1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
2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
3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
4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0
5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
6	동주교회	김양섭 목사	경중노회	150,000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7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
8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9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100,000
10	에벤에셀	진상운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11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	400,000
12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경기노회	200,000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국민 488401-01-2254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금 후 교단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총회장 이 경 근 목사
서 기 신 연 식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이경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복교회



담임 이충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성심교회



담임 박춘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빛교회



담임 임용태 목사